

Japan Weekly Digest

2011. 11. 05. ~ 11. 11.

□ 금주의 이슈

- 노다 총리, TPP 교섭참가를 정식 선언
- 일본 경단련, 원전 재가동 제언

□ 일본기업전략

- 토요다통상,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케냐의 지열발전 수주
- NEC, 저가 슈퍼컴퓨터 신흥국·산업계에 공급
- 일본 중소기업들, 스마트폰 부품의 증산·고성능화에 박차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피크시 전력억제 논의 본격화
- 그린산업 개발지원 국제회의 개최

□ 보고서 리뷰

- 『국내 잠재수요 개발과 신산업 창출』 경제산업성, 11월10일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노다 총리, TPP 교섭참가를 정식 선언

- 노다 일본 총리는 11일 TPP교섭참가 방침을 정식으로 선언, 일본경제 재생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성장을 강조하고 TPP에 참가함으로써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관해서는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힘
-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「무역입국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과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활력있는 사회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」고 강조하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교섭참가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표명
- 농업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농림어업재생추진본부가 지난 10월 결정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침·행동계획에 기초하여 예산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확인
- 한편, 민주당 내에도 TPP교섭 참가에 대한 신중론, 반대론이 많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의료제도, 전통문화, 농촌 등을 지키고 안정된 사회를 재구축할 것임을 천명

□ 일본 경단련, 원전 재가동 제언

- 일본 경단련(경제단체연합회)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제언을 발표. 특히 일정량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「베이스 전원」을 담당해온 원자력발전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얻는 조건으로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
- 경단련은 제언에서 고용의 유지·창출 및 재정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생 가능한 에너지나 에너지절약의 추진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
- 또한 경단련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일본의 에너지 관련기술을 해외에 보급시키는 체제를 구축토록 요망.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% 삭감한다는 정부의 온실효과가스 삭감목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 외에,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구입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요구
- 일본정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환경전략의 기본방침을 결정, 내년 3월을 목표로 원전이나 재생가능에너지 등에 관한 최선의 선택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논의를 환기시켜 내년 여름쯤 구체적인 전략을 책정할 방침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도요타통상,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케냐의 지열발전 수주

- 도요타통상은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케냐전력공사로부터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수주. 수주총액은 약 300억엔으로, 증기터빈 및 발전기는 도시바에서 납품, 2014년 4월 가동을 목표
- 도요타통상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설비의 납품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, 도시바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70,000kw의 지열증기터빈과 발전기 4세트를 수주
- 도요타통상은 아프리카에서 자동차사업을 전개, 각국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, 이집트에서 많은 발전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음
- 도시바는 지역발전설비 분야에서 세계 톱, 동사의 수주 안전중 하나는 JICA (일본국제협력기구)에 의한 엔 차관 지원대상임

□ NEC ‘저가 슈퍼 컴퓨터’ 신흥국에 공급

- NEC는 저가의 차세대 슈퍼 컴퓨터를 개발, 종래 제품가격의 1/5인 2,000엔 전후의 컴퓨터를 2013년부터 발매 예정
- NEC가 개발하는 컴퓨터는 해양연구개발기구의 지구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SX시리즈의 차세대제품으로 1초에 1조 5,000억회의 계산능력을 가지고 있음
- 차세대 제품은 최신기술로 대규모집적회로(LSI)의 탑재수와 소비전력을 크게 줄여 주며, 업무용냉장고 한대만한 크기를 가정용프린터 정도의 크기로 소형화 가능
- 관련 업계에 의하면, 2009년 6,000억엔이었던 슈퍼컴퓨터 시장은 신흥국의 수요와 용도 확대에 2015년에 1조엔 규모로 확대될 전망

□ 일본 중소기업들, 스마트폰 부품의 고성능화

-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일본중소기업들이 증산. 또한 스마트폰은 종래형의 휴대전화보다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어 고성능 부품이 필요, 관련 일본 중소기업들의 부품소형화도 가속화
- 이에 따라 중국이나 대만메이커로 이동했던 휴대전화용 부품수요가 부품의 소형화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메이커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피크시 전력억제 논의 본격화

- 경제산업성은 피크시 사용전력 억제를 목표로 하는 회의를 연일 개최. 기업과 가정의 에너지 총사용량에 중점을 둔 이제까지의 에너지절약대책을 피크시 억제를 촉진하는 대책으로 전환
- 스마트메이커(차세대 전력계)나 소비에너지 관리와 관련된 가전제품의 규격도 통일하고, 민생부문의 에너지절약도 강화할 방침. 금년 중에 에너지절약법의 개정에 관한 결론을 내기로 함
- 회의에는 스마트하우스 표준화연구회와 통합자원에너지조사회, 에너지절약 부회가 참여
 - 표준화연구회는 기업과 가정이 차세대 전력계를 통하여 전기사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규격을 도입할 방침
 - 에너지절약부회는 축전지 설치 관련된 규제완화나 에너지주택 및 빌딩에 대한 에너지절약기준의 의무화대책 등을 논의

□ 그린산업 개발지원 국제회의 개최

- 경제산업성은 개도국의 환경·에너지 관련 과제해결을 위해 국제연합공업개발 기구(UNIDO)와 공동으로 11월 16일부터 3일간 「그린산업개발지원 국제회의 2011」를 동경에서 개최 예정
- 국제회의에는 베트남 상공성 부대신을 비롯, 각료급과 업계의 핵심인사들을 다수 초빙
- 개최목적
 - 개도국산업의 그린화, 환경산업 육성 촉진
 - 일본으로부터 개도국에 환경제품·시스템 이전촉진 등을 목표로, 이들 제품의 상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나 기업에 의한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의 공유에 관한 논의
 - 일본의 우수한 환경제품·시스템을 해외 참가자에 소개하기 위한 환경관련 전시회(INCHEM TOKYO 2011)의 동시개최 및 상담회 실시

◆ 보고서 리뷰

『국내 잠재수요 개발과 신산업 창출』

(경제산업성, 11월10일)

□ 내수침체의 원인

- 가계부문
 -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저축의 상승
 - 고용환경 악화에 따른 노동소득 감소
 - 저금리로 재산소득 감소 등에 의한 소비억제
- 기업부문
 - 수비경영에 의한 차입금 상환, 비용절감
 - 가격경쟁 격화에 따른 이익율 저하
 - 기술혁신 부족 및 국내 규제 등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력 감소

□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및 방향

1. 내수개발 : 고용 창출형으로 제도개혁을 통한 잠재수요 개발

(1) 내수의 2대 원천

- ① 국내외 잠재수요
 - 탄소생산성이 높은 분야
 - 아시아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분야
 - 저출산·고령화에 의한 시장확대 분야
- ② 새로운 과제에 대응
 - 환율변동에 강한 분야
 - 에너지 공급변동에 강한 분야

(2) 내수개발을 통한 3대 신산업 창출분야

- ①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한 신산업 분야
 - 의료·간병 건강 관련 서비스 등 health care 산업
 - 양육과 취업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육 지원서비스
 -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조성 및 유통산업
- ② 에너지 공급제약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신산업 분야
 - 축전지 및 절전 서비스 등 새로운 에너지 산업
 - 차세대자동차 등 국내 제조 산업
- ③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분야
 - 농업·식품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

2. 정책적 지원

- 본격적인 산업화 지원 및 산업의 활성화
 - 이노베이션 촉진을 통한 내수확대의 선순환 지원
- 아시아 지역 등에 대한 해외사업 지원

□ 기대효과

- 새로운 소비확대, 국내산업의 부가가치 향상, 양질의 고용제공, 지역활성화

□ 시사점

- 내수의 원천을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 유형화했다는 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들이 설득력이 높고 합리적인 점 등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【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】

(1) 『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(FTAAP)의 실현수단으로서 TPP』 아시아경제연구소, 11월5일

*출처:http://www.ide.go.jp/Japanese/Publish/Download/Seisaku/1111_tpp.html

(2) 『그린 경제성장 : 환경효율을 고려한 기술진보율 예측』 일본정책투자은행, 11월5일

*출처:<http://www.dbj.jp/ja/topics/report/2011/html/0000008187.html>

(3) 『부흥예산과 엔고대책』 미쓰비시UFJ리서치&컨설팅, 11월8일

*출처:http://www.murc.jp/report_pdf/20111107_154015_0140409.pdf

(4) 『국내 잠재수요 개발과 신산업 창출』 경제산업성, 11월 10일

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ankoushin/shinsangyou/002_02_00.pdf

(5) 『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분석』 일본공정거래위원회, 11월10일

*출처:<http://www.jftc.go.jp/cprc/reports/cr-0311.pdf>

(6) 『일본, 또 하나의 적자 : 정치적 리더십의 결여』 경제산업연구소, 11월 11일

*출처:http://www.rieti.go.jp/jp/special/p_a_w/009.html